

# 이 시대 아이를 이해하는 키워드

아이들의 사생활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2008년 <아이의 사생활 I>로 아동기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배경지식을 쌓았다면, 2009년 <아이의 사생활 II>는 성장한 아이들의 생활 영역,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본다. 책이 면진실 사위 정종호

시즌기, 인터넷 게임 그리고 형제라는 이름의 라이벌.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형성해 나가길 원하는 생활 영역이라는 것. 그것이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부모와의 전쟁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 문화에 대한 접근이 거의 차단되었던 시절에 시즌기를 겪고, 인터넷 게임보다 동네 콤플렉스 친구, 형제들과 뛰놀았던 시간이 더 많았던 지금의 부모 세대는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이의 사생활 II>는 진정한 의미의 아이들의 사생활에 접근하기 위해 주제별로 실제 가족을 초대해 두 달간 포로식별을 실시, 변화된 살펴보는 '집단 가족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심리학적 실험 위주로 진행이 가능했던 <아이의 사생활 I>와 달리 이번 주제들은 특성상



적합하지 않아, 각 특성에 맞게 '사레 소개'와 '솔직 토크' 등 새로운 시도로 아이들에게 직접 알 걸기에 나선 것이다.

### 대화가 필요한 아이들의 성 - 1부 사춘기

이런 자녀에게 성교육을 시켜 사춘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정작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눈앞에 둔 아이에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가? 제작진은 사춘기를 앞둔 자녀가 있는 다섯 가족과 함께 창의적인 실험을 펼친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기 힘든 '성'이라는 주제를 두고,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인 대화와 교육을 통해 섹스 코드를 시작한다. 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자녀의 관심사와 신체변화를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생기고, 아이는 진지한 성분화를 원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렇다면 부모와 성교만을 나누지 못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사회 미디어에서 진행되며, 이는 바람직한 것일까?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성적 지식과 공격적인 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국내 첫 실험이 진행된다.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직접 확인해 보자.

### 미디어 통한 새로운 관계 맺기 - 2부 미디어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기를 바라는 부모와 부모의 통제권을 벗어나 자유롭게 컴퓨터를 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갈등은 어느 가정에서

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왜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집착하는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다섯 명의 아이들을 만나본다. 이어 제작진은 자녀와 부모간의 올바른 미디어 습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담았다. 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아이 스스로 미디어를 즐길 줄 아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이 공개된다.

###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갈등 - 3부 형제

부모의 사랑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쟁자, 형제와 자매다. 부모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들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기 힘들고 다분히 주관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의 갈등을 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부모다. 여섯 가족이 세 명의 아동 심리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는다. 부모의 아이와의 기질에 대한 이해, 첫째 아이에게 일방적인 양육을 강요하는 등 공평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정 내에서 이루어 지는 관계 분석을 통해 형제 갈등을 새롭게 해석한다. 가치권과 자아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존재는 부모다. 부모와의 단절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기회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아이의 사생활 II>는 서로에 대해 몰랐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따뜻한 방법을 제안한다. ●●

#### Interview 김하중 PD

Q1 <아이의 사생활 I>와 차별화를 둔 점이 있다면? 시즌 1에서는 심리 과학에 입각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주제를 입증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드는 방식을 택했다. 실험에 참여할 가족을 지난해 12월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실난 가족프로그램'으로 실행했다. 고민을 안고 있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족들이 TV에 출연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포맷이 가능해졌고, 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Q2 1부 사춘기 편 섹스 토크는 국내 성교육 풍토상 진행하는 데 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었다. 사회적으로 부모 사녀간 성 대화는 그야말로 금기시 될 정도가 아닌가. 이는 우리가 고민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제안하고, 지난해 논문까지 발표한 연구다. 부모 자녀간의 성적 의사소통이 수년간 진행된 결과, 자녀들의 성적 태도, 첫 경험 시기 등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났다. 실제로 두 달 동안 성적 의사소통을 시도해,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담으려 했다.

Q3 부모 입장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은 아홉 살과 다섯 살 난 아이를 눈 부모인 내 이야기이다. 참이 한 가족들도 모두들 내 노래들이라 나 역시 프로그램에 쉽게 몰입되었다. 그러나 보니 실험에도 눈길이 가더라. 전만내 연구팀과 함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이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충격을 받았다. 어른들의 반응도 어질잖네, 무방비 상태인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염려스러웠다.

Q4 <아이의 사생활 II>를 통해 부모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아이와의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은 빠를수록, 그리고 많을수록 좋다. 강압적인 대화가 아닌 사소한 것부터 함께 대화로 풀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열려있는 미디어로 인해 넘쳐나는 그릇된 성 정보로부터 부모가 완벽히 아이를 보호할 수는 없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아이의 사생활 II>은 갈등 속에서도 부모가 취할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1997년 EBS에 입사, <PD리포트>, <EBS 스페이스 공감>, <생방송 토론카페>, <EBS 스페셜>, <영의>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2002년 'EBS 우수프로그램' 대상, 2003년 방송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 당신의 기억력은 안녕하십니까?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더라?’, ‘이전 회의 때 만난 사람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많은 단어를 언제 외우지?’ 이렇듯 누구나 일상에서 중요한 일을 깜빡하거나 기억해야 할 자료에 비해 시간이 부족해 찢찢 맨 경험에 있다. 그럴 때 절실한 것이 기억력! EBS 다큐프라임 <기억력의 비밀>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 전수에 나선다. 정리 편집실 사진 조정영

현대에서 기억력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 암기력을 뛰어넘어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최근 어린 자녀의 뇌 활동과 기억력 향상시킬 수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두뇌 운동을 촉진시키는 게임이 인기나, 뇌에 자극을 주고, 많이 활용수록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다큐프라임 <기억력의 비밀>은 기억력 향상의 방법을 깨닫기 전까진 먼저 기억력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 그 자체에 주목한다. 뇌과학,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마르틴 뇌의 역할과 함께 최선의 기억력 향상 방법을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기발한 실험을 통해 소개한다. 시청자들의 기억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상상할 수 있을까?

### 슈퍼 기억력에 대한 진실과 오해

비칭한 기억력을 자랑하는 전 세계 0.0001% 기억력 천재들이 있는 반면 오직 노력만으로 세계 기억력 대회 챔피언이 된 보통 사람들도 있다.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처럼 극과극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2009美 기억력’ 챔피언인 로니 화이트를 만나본다. 기억력 향상 전문 강사로 일하는 그는 평소 세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카드나 숫자를 섞어 암기하고, 물구나무 선 상태에서 또는 조깅을 하면서 숫자를 계속 외우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잔잔리에 들기 전 일기에 그날의 기억력 훈련 기록과 앞으로 달성할 목표를 적는다. 훈련을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킬 뎀 회이트를 통해 우리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  
 닐 하나가 밝혀진다.

제작진은 이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이들을 만나 기억력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만난다. 영화 <레인판>에서 러스틴 호프만이 연기했던  
 실개 모델이기도 김피, '저편도 증후군' 을 앓고 있는 그는 일반인이  
 3분 동안 읽을 분량의 글을 단 6초에 읽고 기억한다. 컴퓨터로 50초  
 정도 걸리는 계산도 6초 만에 해결한다.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기억력은 NASA(미국 우주항공국)의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김피의 슈  
 피 기억력은 너의 손상이 기초하고 있으며, 그 원리 속에는 복잡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한편 '과잉기억 증후군' 을 앓고 있는 질 프라이스의 사례와 교통사  
 고로 얼굴 인식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최상범 씨의 사례를 통해 뛰어난 기억력이 인  
 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기  
 억력에 주목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질문에 대한  
 해답을 1부 '슈퍼 기억력을 찾아서' 에서 들을 수 있다.

## 기억력 향상의 열쇠, 일상생활에 있다

2부 '산사는 뇌를 깨워라' 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몸, 그리고 기  
 억력의 관계를 알아보는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된다. 우선 인간의 기  
 억력이 언제부터 형성되는 지를 알아내기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3년  
 개월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기억 테스트' 를 실시했다. 기우어 미친

자신의 얼굴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이어서 직경인 40명을  
 대상으로 '너의 뇌를 바꾸자 - 90일 프로젝트' 를 시행, 아침, 저녁,  
 으로 40분 이상 달리기를 한 그룹과 일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90일 후, 참가자들끼리 제작진을 깜짝 놀라게 한 실험 결과  
 를 통해 기억력 향상의 두 번째 비밀이 공개된다.

## 실전 기억력 향상 프로젝트

3부 '기억력을 높여드립니다' 에서는 박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의 기억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를 소개한다. 실제 미국 기  
 억력 대회에서 출제되었던 사람의 얼굴과 이름, 그 사람에 관한 정  
 보 기억하기 테스트 등이 소개되어 TV를 시청하는 도중 종이와 연  
 필을 준비해 자신의 기억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기억력에 자신이 없었다면 작업 기억력 향상 프로젝트를 유심히 보  
 자. 평소 건강증이 심해 우유로부터 산소의를 끊는 초등학교 선생님  
 강인희 씨, 그녀가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은 물론 몇 개월 전에 바뀐  
 자리까지 알아맞히는 선생님 이정호 씨를 만나 기억력 노하우를 전  
 수 받는다. 과연 강인희 씨는 만 아이들의 이름 외우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부모들이 가장 관심있는 허는 자녀의 학습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도 실시. 그 효과를 알아본다. 인간의 기억력은 진화하며,  
 우리의 기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다. 무엇보다 한계기  
 없다고 믿는 긍정적인 자세는 '기억하기 위한 노력' 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 Interview 김훈석 PD

Q1 기억력에 주목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인간의 기억과 기억력은 인문학적·문화적인 측면을 모두 갖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흥미로운 아이템이다. 인간이 가진 능력에 관한 근본적이면서 실용적인 면을 동시에 말할 수 있었다는 점에 끌렸다.

Q2 1부의 사례를 보면 뛰어난 기억력이 가진 또 다른 면을 엿볼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는? 프로그램에 햇빛의  
 이미지가 많이 나온다. 햇빛이 밝은 곳과 그림자를 함께 만들 듯, 기억은 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도, 한들게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기억력이 축복과 저주를 낳을 수 있다고 한 사례자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Q3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3부에 출연한 강인희 씨는 기억력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학  
 생들이 얼굴과 이름을 신경 써서 외웠다. 그 결과 학생들 이 이름을 더 많이 불러주게 되고, 그래서 수업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더라.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기억하려는 노력은 필수다.

Q4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잊고 살 뿐이다. 하지만 작은 기술들과 전략들을 터득한다면 생활이 조금 편  
 해질 수 있다. 주의 집중력을 기우고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방법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기억력에 한계란 없다.

Q5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PD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과거에는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쉽게 저장할 수 있어 외우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 이제는  
 숫자 외우는 법을 통해 조금 더 잘 기억하게 되었고, 사람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전략을 통해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외우려고 해 당황하는 일이 줄었다.

EBS <애니토피아>, <책 읽어주는 여자, 밑줄 긋는 남자>, <다큐프라임-서툰은 사람할 것이 많다>, <다큐프라임-미래의 학교>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2008년 '제20회  
 한국PD대상' 에서 <시대의 초상>으로 실험정신상을 수상했다.

